

2010년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대상(한우) 농장 이름처럼 '으뜸' 으로 손꼽히는 으뜸농장 신찬형 대표



으뜸농장(대표 신찬형)은 쌀과 도자기의 고장인 경기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본래 불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도자기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토질도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농장이 위치한 곳은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양질의 볏짚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으뜸농장 신찬형 대표는 올해 73세로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덕에 건강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신찬형 대표는 한우를 사육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서울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해오다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접고 현재 위치한 곳에서 한우 암소를 한두 마리씩 입식시켜 암소를 번식하여 출하했다고 한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 농장을 시작하여 지난 2000년 초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 암소와 거세에 대하여 비육을 해야겠다고 눈을 돌려 비육 사양관리에 대한 TMR 사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축사시설은 2개동 1천900㎡으로 한우 거세우 약 1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거세우 8두를 출하하면 송아지를 20여두 입식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은 2005년도에 모두 철거하고 육성우사와 비육우사를 별도로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으뜸농장은 현재 이천 축협 회원농가로서 축협 내에서도 농장 이름처럼 '으뜸' 으로 손꼽힌다.

최고 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려는 강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최고급 한우를 길러낼 수 있는 사양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등급판정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 36두에 대한 등

급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0%로 전국 평균 78.3%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체 출하두수 36두 모두 1등급 이상 출현하였다.

(단위: 두, %)

신찬형	두 수	27	8	1	-	-	36
농가	출현율(A)	75.0	22.2	2.8	-	-	100
전 국(B)		15.9	31.1	31.4	19.5	2.2	100
차 이(A-B)		59.9	△8.9	△28.6	△19.5	△2.2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 36두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0%로 전국 평균 78.3%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체 출하두수 36두 모두 1등급 이상 출현하였다.

향후계획

한·미, 한·EU FTA 체결로 인해 앞으로 지엽하고 질 좋은 수입 쇠고기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축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원천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힘든 앞날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농가경영을 어둠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으뜸농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산물등급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우 농가가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등급판정 결과를 통해 사양관리에 점목시켜 나갈 것이다. 신찬형 대표는 앞으로는 누가 얼마나 생산비를 절감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TMR 사료기술을 더욱 배양하여 더 좋은 육질의 한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2010년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대상(육우) 축산업 25년간의 Know-How 죽영농장 오백역 대표

죽영농장(대표 오백역)은 천년의 고도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5년간 축산업을 종사하면서 오랜 경험과 Know-How로 매년 육우 거세 출하성적이 아주 우수한 농가이다. 축사면적이 990㎡로 육우 거세우 98두를 사육하고 있다.

등급판정 결과

지난 '09년 10월 1일부터 '10년 9월 30일까지 출하한 육우 거세우 43두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출하우의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9.6%로 전국 평균 1등급 이상 출현율(12.5%) 보다 27.1%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체 출하두수 43두 중 1등급 이상 등급이 17두가 나왔다.

출하우의 항목별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국평균대비 도체중은 48.1kg이 무거웠고 배최장근단면적은 4.5cm² 더 크고 등지방두께는 0.4mm가 두꺼웠다. 근내지방도는 No. 3.5로 전국평균(No. 2.0)에 비해 육질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육질등급 출현율(09.10.1~10.9.30)

오백역	두 수	2	7	8	19	7	43
농가	출현율(A)	74.6	16.3	18.6	44.2	16.3	100.0
전 국(B)		0.3	2.5	9.6	40.4	47	100.0
전국대비(A-B)		4.3	13.8	9	3.8	Δ30.7	-

〈표2〉 항목별 등급판정 결과평균

오백역 농가(A)	461.1kg	6.3mm	79.2mm	No. 3.5
전 국(B)	413.0	5.9	74.7	2.0
전국대비(A-B)	48.1	0.4	4.5	1.5

사양관리

가. 전체 사양프로그램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비육	큰소비육	후기비육
월령	생후 5개월 입불이까지	6~13개월	14~21개월	22개월~출하
특징	어린송아지→ 수송 스트레스 사료 단계별 급여	비타민 A 함유 양질의 조사료 급여	경락제 급여	첨가제 급여
농후사료	2~4kg/일	4~9kg/일	9~11kg/일	무제한 급여
조사료	1~3kg/일	3~4kg/일	1kg미만/일	0.5kg/일
일당증체량(kg)	-	1.2~1.3kg	1.2kg	0.7~0.8kg
목표체중(kg)	190~200kg	400~450kg	700~750kg	800~850kg
중점관리사항	양질의 조사료 송아지 스트레스 완화	농후사료 제한급여	조사료는 벧짚만 급여	벧짚 제한 급여

나. 송아지 구입 및 입식관리

송아지 구입은 주로 상인을 통해 혈통이 좋고 성적이 우수한 송아지만 구입하여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아지 입식시는 새로운 축사, 사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입식전 소독, 우사청소와 바닥에 깔짚을 깔아 송아지가 가장 인락하고 편안하게 헤 줌으로써 입식 후 송아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료급여는 양질의 조사료와 송아지 사료를 입불이까지 어린송아지→수송 스트레스 사료를 단계별로 급여함으로써 입식 후 송아지가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거세실시

거세는 생후 5~6개월 전·후로 실시하고 있으며 거세시 거세로 인한 병원균 감염이나 스트레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 육성비육 사양관리

육성비육(생후 6~13개월령)에는 체중을 체크하여 농후사료량을 천천히 제한 급여하고 비타민 A함유 양질의 건초를 무제한 급여하고 있다.

마. 큰소비육 사양관리

큰소비육(14~21개월령)단계는 배합사료를 9~11kg을 급여하고 조사료는 벧짚만 1kg 미만으로 급여하며 미네랄이 함유된 첨가제도 급여하고 있다.

바. 후기비육 사양관리

후기비육(22개월~출하)단계는 배합사료는 무제한 급여하고 조사료는 소량의 벧짚만 급여하여 24개월령에 초음파 진단없이 알관 출하한다.

사. 연간 출하두수 및 경락가격('09.10월~'10.9월)

연간 43두를 농협고령, 농협서울로 출하하여 상장한 결과, 출하한 육우기세우의 평균 성적을 보면 도체중이 461.1kg, 등지방 두께 6.3mm, 등심단면적 79.2cm², 근내지방도 3.5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7.1%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

죽영농장은 육우 기세우의 고급육생산 비율을 점차 높여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이 좋고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상위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하고 배합사료 및 조사료 급여량을 정확히 조절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육우 기세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10년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대상(돼지) 양돈농가 선도적 역할 수행 봉영농장 고영미 대표



봉영농장(대표 고영미)은 지난 2007년 5월 7일 HACCP인증에 이어 지난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양돈분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 의거, HACCP인증을 받은 농장 중에서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지정되는 인증제도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선정되려면 가축사육밀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전량 농지에 환원해야 한다. 또한 축사를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철저한 심사기준을 통과했을 때 농림

수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선도적인 농가이다.

농장경영의 꿈을 현실로

고영미 대표는 축산을 전공하고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난 2002년 5월 10일 모돈 50두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 모돈 180두, 총 2천1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위생적인 고품질의 규격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장의 경영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환경친화축산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고품질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앞장

봉영농장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말까지 육질 부분에서 1등급 26.7%, 1등급 64.1%, 규격등급에서는 A등급이 66.6%, A·B 합한 등급은 89.6%이다. 이러한 높은 성적의 육질 및 규격 등급 출현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가들에게 모범이 된다. 또한 양돈장 환경 및 급여단계에서 꾸준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식탁을 친환경에 가깝게 하려는 의지 또한 앞장서고 있다.

봉영농장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말까지 육질 부분에서 1' 등급 26.7%, 1등급 64.1%,
규격등급에서는 A등급이 66.6%, A, B 합한 등급은 89.6%이다. 이러한 높은 성적의 육질 및
규격 등급 출현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가들에게 모범이 된다.

향후 방향 및 목표

봉영농장의 김영미 대표는 "앞으로도 종돈, 자돈, 비육돈 성장단계별 사료프로그램 및 농장 맞춤형 비육돈 후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 다른 양돈 농가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한다. 또 "외국시장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농장 규모를 늘려나감은 물론 나아가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로 브랜드 활성화 및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여 돼지고기 또한 등급별 소비촉진에 앞장, 축산업 발전에 아주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양돈 산업은 집약화 및 대규모화가 일반 추세이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돈농가의 목표일 것이다. 봉영농장은 수입개방에 따른 제3차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양관리,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등 양돈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

